

## 2. 내가 겪은 여순사건②

증언 : 심명섭(76세, 가명)

채록정리 :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지역사분과

증언시기 : 1990년 9월

심명섭은 여순사건 당시 입산하여 '구철'이라는 이름으로 1954년 5월 무장해제당할 때까지 당시 전남도당 박영발 위원장, 김선우 부위원장 등과 함께 5개 지역으로 나누어진 전남유격구 중 광주지구를 책임 맡아서 활동했던 사람으로 1954년 당시 전남도당 군사2부장을 지냈다.

나는 낙안에서 태어나 주암에서 살았고, 빈농집안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나는 학교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따라서 당시 국문 해독능력이 없었다. 해방 이후 치안이 거의 공백상태에 있을 때 지방에는 특별한 조직적 체계와 구성은 아니지만 '자위대'가 구성되어 있었다.

나는 그 자위대의 구성원이었다. 당시 승주 주암에는 건국준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이었다. 그때 일제 때 순사를 했던 이영권이라는 사람이 순천 읍내에 거주하다가 면장이 되기 위해 주암에 왔다. 면민들이 운집해 있었고 해방의 기쁨을 구가하고 있을 무렵, 그는 단상에 올라왔다. 그러자 한쪽에서 '친일과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고, 그는 가지고 있던 일본도로 자기 배를 가르는 이른바 활복자결을 기도하였다. 그러나 그 행위는 다분히 쇼였다. 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가장된 행위였다. 해방정국의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당시 건준위원장이 살해되었다. 나는 곧바로 드러난 정치투쟁보다는 농민위원회를 결성할 것을 결심했고 농민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었다. 이 농민위원회는 합법적인 조직도 비합법적인 조직도 아니었는데 비합법 조직에 가까웠다. 1946년 나는 내 생애에서 매우 중요한 전기를 맞았다. 그것은 그해 10월 남로당에 입당한 일이었다. 이러한 나의 변신은 당시 50세 정도의 중년인 정병조 씨, 광양 출신의 왕근 씨 등의 역사강좌에 감동을 받고 나서였다.

당시 나는 자본주의의 개념도 민주주의의 개념도 잘 알지 못했지만, 곧 역사 속의 한 개인의 운명이라는 것이 제도 속에서 오는 불합리한 점에 기인된 것이지, 잘살고 못 사는 일이 운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원칙을 깨달았다. 즉, 역사의 오류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었다. 한편, 그무렵 나는 국문(한글)을 깨쳐가고 있었다. 하지만 위의 훌륭한 분들의 강의를 듣기는 해도 받아 적는 데까지는 익숙지 못했으므로 많은 부분을 강의 후에 옆 친구의 것을 보며 다시 완성해가는 처지였다.

미군정 당시 포고령 19호 위반으로 나는 처음으로 형무소 신세를 졌다. 그것은 전단을 붙이는 행위가 위법이 된 까닭이었다. 이 사건으로 나는 3개월 복역했다. 복역 후 나는 순천군당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때 이미 모든 당사업은 불법이었으므로 비합법투쟁 형태로 계속되었다. 순천군당의 지도부는 순천 읍내에 비밀 아지트(비트)를 구축하고 있었고 여순사건이 일어날 무렵에는 그 조직원의 수가 1만 명에 가까웠다. 당시 나는 군당 지도과장이었다. 당의 지도원 각자는 2개 면씩 책임구역이 있었고 나는 낙안과 별량지역을 맡았다. 그러나 지도원이라고 해서 뛰어난 정세판단 능력과 사상성을 갖춘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나 역시 도나 당 중앙의 문건들을 지역의 책임 오르그가 해석해주면 각 세포들에게 그것을 토대로 교육하곤 하였다. 그러나 지도원 전체가 나처럼 하진 않았고 배운 바가 많은 이들은 곧바로 이해하고 지도 실천할 수 있었다.

1948년 10월 20일 아침녘에 군당 연락책이 낙안으로 와서 여순사건이 터진 것을 알려주고, 순천군당에서 나를 호출했음을 연락받았다. 순천을 향해 걸어가던 중 나는 박장군묘 근처에서 요란한 총소리를 들었다. 나는 동지들과 함께 그곳에서 쌍안경으로 시내의 사태를 주시하였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날 아침 여수에 있던 14연대 병력이 순천역을 중심으로 시내를 포위하고 공격하기 위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시 순천에 있던 기마대를 개편한 기동대들의 병력은 전날 이미 여수의 상황을 보고받고 있

던 터라 밤중에 이미 동천을 중심으로 주민들을 동원하여 가마니로 진지를 구축하고 응전채비를 갖추고 있었다. 거기에 광주 4연대 기동대들이 지원하기 위해 오고 있었다. 오전 10시 무렵 실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기동대를 지원나온 4연대는 총구를 오히려 기동대 쪽으로 돌리고 다시 내부 반란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순천을 사수하리라던 기동대는 뜻밖에도 힘도 써보지 못하고 무너지고 이어 광주 4연대 쪽에서 하얀 백기를 흔들자 14연대와 함께 어우러졌다. 나는 이 상황을 거의 빠뜨림없이 쌍안경으로 관망할 수 있었다. 광주 4연대는 후에 부대 명칭조차 없어졌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당 중앙에서는 남한혁명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들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14연대 내의 우리 요원들 사이에서는 제주파병 문제를 두고 심각하게 의견이 대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은 첫째로 파병하여 그들(항쟁 중인 제주도민)에게 물리적 힘이 되어야 한다(이것은 당의 지시였다)는 쪽과 둘째로 파병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므로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이렇게 부대 안에서 강한 대립이 있었다. 그런데 당시 군부 내 숙청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14연대 내에서도 그런 위험이 미치자, 둘째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사건이 주도되어 여순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14연대가 순천에 진입해왔을 때 당은 내가 아는 바로는 14연대 병력의 통제를 용이하게 수행하지 못할 형편에 있었다. 당시 상황에서 전남도당에서도 여순사건의 실태를 옳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도당에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사태를 파악하여 빨리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가 직접 받았다. 후에 안 일이지만 어찌하였던 14연대의 움직임은 당의 입장을 위배한 해당행위로 여겨진다.

당시 당의 입장을 위배하고 무계획적으로 일어난 행동으로 인해 당의 통제력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절제한 모습이 파생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무절제한 행동들에 대해 역사의 과오를 저질렀음을 자기비판해야만 했다. 무절제한 행위란 역사에서 우리가 믿고 생각하는 사상의 우월성, 도덕적 우월성을 관철시켜내는 데 민심이 이반되도록 정치력, 사업작풍에서 오류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은 이제 전면투쟁에 펼쳐 일어나야 할 판이었다. 당시 순천군당위원장은 정남현, 조직부장에 지유섭, 선전부장에 정기주였다. 나는 다시 농림위원장이 되었다. 한편 도에서 파견한 오르그는 윤기남 씨 등이었다.

세상은 바뀌었다. 20·21·22일 아침까지 당성이나 정치성이 부족한 세포요원들이 앞장선 무분별한 살상이 있었다. 살상의 주된 표적은 공무원, 경찰과 그의 가족, 서북청년단 등이었다. 그러나 민간인에 대한 살상도 상당수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은 경륜이 짧고, 세상이 곧 바뀌리라는 지극히 단순한 사고의 결과로 보인다. 이는 민심을 이반시키고 돌아서게 함으로써 정치성의 부재에 의한 또 하나의 명백한 해당행위를 한 셈이었다. 당시 순천경찰서 뒤뜰에는(현재 금강호텔, 기업은행 자리) 주검이 쌓여갔고 곳곳에서 주검이 목격되었다. 물론 살상에 직접 나선 이들은 군인들이었지만 명백히 그 책임은 당에 있었다.

국방군의 진압계획은 착착 진행되어갔다. 마산과 군산에 주둔해 있던 국방경비대가 순천 인근을 포위하였다. 그들이 맨 처음 시작한 작전은 순천 외곽의 우리 보초를 생포하는 일이었다.(당시 순천을 경계하는 초소는 현재 교도소가 있는 서면 삼거리 정도였다) 그들은 이어 생포한 보초를 통해 암호를 습득하고 우리편 병사를 가장해서, 진압군 요원이 군당의 중앙부까지 침입해왔다. 그들은 먼저 당의 핵심간부에 대한 은밀한 체포 및 살해공작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비핵심간부인 나는 체포 및 살해의 일차적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군당위원장을 위시한 많은 분들이 진압군 요원들에 의해 비밀리에 체포되어 현재 순천대학 근처에서 살해되었다.

지도부 제거공작을 완수한 진압군은 23일 아침 시내 일원에 박격포 공격을 해대면서 공격해들어왔다. 나는 필사의 탈출을 시도했다. 진압군은 중·경기의 화력으로 무차별 사격을 가해왔다. 현재 북부시장 통 부근의 길바닥에는 그들이 쏜 총에 의해 주검들이 쌓여갔다. 나는 시체들 틈에 엎드려서 죽음을 가장했다. 잠시 후 바로 옆에 죽은 이의 머리에서 터져나온 골과 피덩어리를 얼굴과 옷에 마구 바른 뒤에 사격중지의 틈을 타서 길 옆의 집에 뛰어들었다. 그 집은 다행히 아는 친구의 집이었다. 그 집 부

업에서 몸을 씻고 친구 부인에게 부탁해서 옷가지 한 벌을 구해 입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부인 모습이 낯 나간 모습이어서 알아보니 그 친구가(그 친구도 지목받고 있는 상태였다) 변소에 앉은 채로 이미 죽어 있었다. 잠시 후 무슨 소리(인기척)가 나서 나는 황급히 몸을 담벼락에 붙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였다. 그 소리는 다른 소리가 아니라 상여가 나가는 소리였다. 나는 그 행렬에 뛰어들었다. 그 행렬을 따라 현재 가곡동 뒷산을 거쳐 임촌으로 내려와 순천을 빠져나갔다.

순천을 빠져나와 쌍암 쪽으로 가니 그쪽에는 아직도 인공기가 필릭이고 있었다. 이쪽은 아직 순천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선을 대서 알아보니 조직은 거의 와해되어 있었다. 나는 조직원을 수습하였다. 그런데 쌍암 쪽 마을에서 진압군 복장을 한 중위가 걸어오고 있었다. 잡고 보니 도당에서 파견한 오르그였다. 도당에서는 나에게 군책의 과업을 책임지웠다. 그후 약 1년간의 입산생활과 유격투쟁을 수행하였다. 내 아래 있던 두 남동생과 여동생은 나 때문에 여순사건 당시 죽었다. 진압 이후 순천에서는 또 다른 살상이 자행되었다. 이른바 '복수대'라는 이름의 집단에 의해 자행되었던 것이다.

이후 나는 도당의 지시로 도당으로 옮겼다. 도당에서는 당의 유격지구를 5개 지구로 편성하였는데 나는 그 중 제1지구의 책임을 맡았다. 주된 활동지역은 광주를 중심으로 한 화순·곡성이었다. 지리산은 제5지구였다. 이 과정에서 1949~1950년 동계 공세까지 입산투쟁에 동원된 조직원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었다. 비합투쟁 속에서 우리는 끝없이 이산 저산을 뛰어다녔다. 나는 그해 겨울을 전남의 중심부인 모후산에서 보냈다. 진압군은 무등산, 백운산, 백아산, 모후산 등의 거점에 50m 간격으로 초소를 설치하였다. 그들은 우리를 아예 박멸시키려는 듯하였다.

세상이 또다시 바뀌었다. 1950년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인민군이 광주 근처까지 밀고 내려왔을 때 광주시내 일원의 경찰은 소문 없이 자취를 감췄다. 우리는 시내에 다시 발을 들여놓았다가 전열과 대형을 갖추고 행군을 시작했다. 일반 국민들의 정서는 놀라울 정도로 민감하였다. 그들은 우리를 대대적으로 환영하였다. 무등산 기슭의 화순 어느 마을에서는 자발적으로 그때까지 나도 보지 못했던 인공깃발을 만들어 흔들며 환영했고, 심지어 식사대접에 닭을 잡을까 돼지를 잡을까 하며 소란을 피우기까지 하였다. 이장은 앞장서 마을주민들을 모이게 하고 환영했다. 우리는 그곳에서 즉석 연설을 하였다. 이 즉석 연설은 말단 병사가 맡아서 했다. 주민들은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야단이었다.

그때 산모퉁이에 무장을 한 경찰 10여 명이 이쪽을 향해 행군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주민들은 그들을 위협 사격만으로 생포할 수 있으리라고 충고해주었다. 우리는 사격자세를 취하고 흩어져서 위협 사격을 가했다. 경찰은 곧바로 투항해왔다. 대원 중의 한 사람이 그들을 포로로 데리고 다니는 것이 귀찮으므로 모두 총살하자고 했다. 그때 허름한 옷차림의 한 사나이가 일어나서 “지난 투쟁에서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하지 않았소? 만일 우리가 저들을 죽인다면 또다시 우리는 정치적으로 심각한 곤경에 빠지고 말 것이요. 우리가 그들을 살린다면 우리는 정치적으로 승리할 것이요.”라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우리가 또다시 실수한다면 어찌면 남한 사람의 절반 이상을 우리의 적으로 잡고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될지도 모르오.”라고 말했다. 그의 대중적 관점은 우리를 설복시켰고 우리는 그의 말에 따랐다. 그의 말이 맞았다. 적을 만드는 것보다 우리편을 늘려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투쟁이었다. 후에 안 일이지만 그는 전남도당부위원장인 김선우였다.

나는 여기서 그당시 지도부들의 깨끗하고 맑은 사상과 품성에 대해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다. 김선우는 그 험난한 산생활 속에서 일일이 아픈 동지들을 병간호해주고 약초를 구하기 위해 휴식시간에도 헌신하였다. 머리가 긴 동지들을 깎아주는 동지애를 발휘한 사람들도 김선우와 같은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또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1953년 봄에 김선우 위원장(그는 전남도당 군사1부장도 겸하고 있었다)은 백운산으로 나를 불러 정면투쟁은 무모하다, 현재 상태의 투쟁은 많은 한계가 있다. 미국이 이런 형태로 한국에 있는 이상 현재의 우리 모습 가지고는 무모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의 동지들이라도 소중히 하여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라고 예시를 주었다. 그 말은 우리의 투쟁이 끊임없이 계속되도록 하려는 생각의 발로였다고 나는 믿는다. 또한 박영발 도당위원장과 김선우 부위원장은

1953년 봄에 그간의 모든 사업을 총화하는 기회를 가졌다. 사업총화의 주요내용은 “전 당원을 모두 입산시킨 것은 우리들이 지은 가장 큰 과오 중의 하나다. 때문에 우리의 조직은 적에게 전부 노출되었고 입산투쟁과 외부 지하투쟁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오류를 검토하고 우리 사업의 계속 전진, 계속 혁신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으면 살아남도록 당부하였다.

전쟁 중에 나는 도당 경리부장이 되었다. 그런데 당시 나보다 더욱 훌륭하고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주요직책을 맡게 되고 수행하게 된 데는 빈농 출신이라는 것이 많이 작용한 것 같다. 나는 이 기간 중 제주도 도당위원장으로 가게 되었으나 결국 가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은 빛나가고 있었다. 결과는 지도부가 정세판단 오류를 시인하게 되었다. 김선우 부위원장은 나에게 대마도로 피신하라고 하였다. 그곳에서 붙잡히면 오무라 수용소에 수감될 것이고 고생이 심할 것이다. 잘 참고 견디면 1개월 이내에 정치망명 형태로 살아남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친구 1명과 같이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광주와 옥과 사이에 있는 문재에서 지나는 사람을 위협하여 35만 원이라는 거금을 마련하였다. 나는 곧바로 별량에 사는 옛친구를 찾았다. 그는 아내와 네 아이를 두고 국민학교 선생을 하는 친구였다. 그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나는 친구집에 은신처를 두고 1개월 가까이 잠복해 있으면서 일본까지 갈 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여러 날 지체하게 되면서 배주인과 접선하기로 한 날에 접선장소에 가보니 이미 그곳에는 나를 잡기 위해 경찰이 포진해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필사의 탈출을 하였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친구는 내 수중에 있는 거금을 탐하고 또 자식들의 장래를 걱정해서 나를 배신한 것 같았다.

나는 그 길로 밤길을 달려 선암사까지 행군을 감행하여 선암사에서 하루를 피신하였다. 그러나 나는 은신생활에서 이미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데다가 오랜만의 행군에 감기가 걸리고 말았다. 아픈 몸을 이끌고 주암에 들러 필요한 식량과 물품을 구했다. 다시 백아산을 거쳐 담양까지의 행군을 시작했다. 담양에서 먼 친척뻘이 되는 이를 찾아갔다. 친척집에서 아픈 몸을 바라보며 자수라는 형태로 무장해제를 당하였다. 그때가 1954년 5월이었고 산에는 아직도 6명의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경찰들의 진급을 위한 이용물로 내가 이용되고 나는 8년 2개월의 복역을 하고 출소를 하였다.